

마가복음 2-3
Tape #C2518
By Chuck Smith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2:1-5)

“소자야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대단히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구 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건데 ---’라고 생각 하며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 하지만 예수께서는 는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 그렇다면 ,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입니까 , 아니면 병 고침입니까? 진실로 한 인간에게 가 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 씀하신 것입니다 . 이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이적 중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며 ,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사실입니다 .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 하지만 ,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께서 “소자야 ,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 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 ” (2 : 6-7)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 서기관들이 마음 속으로 의논한 것 중 두번째 생각은 옳지만 첫번째 생각 , 즉 “이 사람이 ---참람 하도다”라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참람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 셧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의논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

시편 51 편에서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울며 “하나님이여 , 주의 인지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 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네가 나에 관해 진실을 알고 있도다. 과연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이유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는 밀히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 한분외에는 선한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거나 생각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적 권위를 행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증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2: 8-12)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단순히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쉽습니다. 말이야 어떻게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는 금방 탄로가 나고 말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결과를 금방 증명해 보이게 됨으로써 자신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즉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을 가지고 걸으라고 어떤 사람에게 말했는데도 그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말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말한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 하였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비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당신의 선한 행실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며 당신에게 모든 관심과 찬사를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의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닌가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바로 후자와 같은 방법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 이 나에게 향했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

어린 시절 우리는 종종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곤 합니다 . 운동장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미식 축구공을 팔에 끼고 상대팀을 향해 돌진하는 축구 선수가 되곤 합니다 . 관중들은 환호를 하고 미식 축구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 “ 3 번 쿼터백 , 볼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 두 사람 계속 제치고 있습니다 ! 골인 지점을 향해 돌진합니다 . 드디어 골 라인을 넘었습니다 !! 대단합니다 . 참멋집니다 .” “와 , 와”하는 관중들의 환호가 들려옵니다 . 혼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럴 듯한 자세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 너댓 살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 자기가 굉장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 관심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환호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닌 특성입니다 . 그렇지만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사람이라면 , 옛 사람은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서 는안됩니다 .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는우리의 행실을통해 하나 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 습니다 .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놀란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쫓으니라 .” (2: 13-14)

레위는 세리인 마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 예수께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흥미로운 사실은 ,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한 자라고 밝혀져 있지만 , 마태복음에는 저녁식사에 대해 언급하지는 했지만 자신이 그 저녁식사를 준비한 주인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라 .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 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 ---” (2: 15-17)

바리새인들이 이 저녁식사에 수치감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즉 음식은 체내 에서 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국 한 그릇을 가지고 함께 떠먹거나 빵을 함께 떼 어 먹게 되면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 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악했던 것입니다 .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 십니다 .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 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에 금식할 수 있느냐 ?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수 없나니 ,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 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 (2:18-20)

금식은 하나의 영적 권리로서 자신의 육신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의식 중의 하나였습니다 . 예수님 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금식을 명하지 않으 셧습니다 .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게 될 때가 바로 금식해야 할 때라고 가르치셨 습니다 .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는 포도주와 고기와 밀로 만든 음식을 먹 지 않았습니 다 .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즉 우 리가 할 수 있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이 있고 , 또 일정기간의 기도생활 동안 특별한 어떤 것들을 먹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

육의 음식이 몸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영을 살찌게 합니다 . 우 리는하루세 끼 밥은잇지 않고찾아먹지만영의 양식을먹는데는관심이 기 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상반되는데 육체의 소 욕이 영의 소욕을 정복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는 충실한 반면 , 영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 그 러므로 금식 기도는 이러한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 즉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을 금하고 영의 소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 영과 육의 전쟁은 영의 승리로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 이것이 금식 하는 진정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 라 .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 (2: 21-22)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 어떤 종교 체제가 고착상태에 빠져 그 자체에 새 힘을 불어 넣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착상태에 빠진 체제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 속에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고정화된 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 적으로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역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리일으키실 때 우리는 고정화된 종교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피족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이 일을 돌아보기에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히피족들에 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를 융통성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우리는 결코 어떤 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 이야 ! 이것이 나의 방식이야 !”라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 항상 유연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저 희가 부러지지 않을 것임이요 .” 만일 우리가 틀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예요 . 우린 그 령게 못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정한 형태로 고정화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 가지 틀로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 사람들이 하나님을 틀 속에 넣으려 하고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도록 애쓰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 니.” (2: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뉴월이 되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멸알을 쟁처럼 씹어 먹었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종 이렇게 간식을 먹곤 했는데 ,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한 자들이 꺾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 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 (2: 24-28)

인간의 필요가 율법보다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 그들이 시장기를 느낄 때 , 마침 그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 율법에 따르면 , 밀밭을 지나갈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을 낫으로 베어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 배고픔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 즉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 그러나 밀밭에서는 자기의 필요 , 즉 자기의 배고픔만을 충족시켜야지 이삭을 잘라서 밖 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한 제자들이 배고픔 을 채운 것일 뿐이라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 제사 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 , 즉 배고픔이 더 상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었다는 사실입니다 . 물론 안식일을 지켜 우리의 몸이 쉬을 얻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올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거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 어느 것이 옳으나 ?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 (3: 1-5)

이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것은 불법이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었지만 , 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피를 지혈할 수는 있었으나 상처 부위를 씻고 싸매고 약을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비록 그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 그들은 예수께서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에게 즉각적인 관심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면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가를 눈여겨 지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예수께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어리석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 예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 이시면서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 어느 것이 옳으나?”라고 저희에게 물 으셨습니다 .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

예수께서는 저희들로 말의 울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 그들은 선 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야 하지만 ,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저희들의 완악함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셔서 저희를 둘러보셨습니다 . 왜냐하면 , 저희의 종교적 전통이 형식에 얽매여 손 마른 자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학관 때문이었습니다 .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신학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는 신학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노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시어 채찍으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관습에 얽매어 영적으로 장님이된 사람들을 볼때마다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생동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주 이러한 관계를 종교적 체제 내에서 정형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 손 마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손 마른 자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손 마른 사람은 “나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손을 펴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펼수 없었습니다”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손을 쭉 내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이 용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황폐한 영역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나 기질이나 육체의 연약함등에 관심을 갖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손을 보시고 “참 훌륭한 손이다. 이 손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손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너의 그 성격으로부터, 너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모르십니까?”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논쟁이나 변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한 일을 나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명령대로 따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 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라. 자유하라. 극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네, 주님! 하겠습니다”고 고백하면 예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3:6)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소경이 되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 방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벗어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신학교가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리를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분 이상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림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뿔근히 힘이더라” (3:7-11)

만일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데 배를 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11 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께 “당신은 하나님의 이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힘일러라? (3:20-21)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 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림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힘일러라.” (3:22-30)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힘을 입어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함받지 못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함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 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6-19)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한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 마련해 두신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 함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진 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보여 주셨던 이적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반증거리를 제 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라든지 귀신의 힘을 입었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눈 앞에 나타나는 사실을 합리화시켜 부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합리화는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거야.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거야”라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불합리한 논리로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를 불합리하게 거부한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사함받지 못할 죄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 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3:31-35)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이 세상의 가족관계보다 더 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깊고 아름다운 내면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 형제 자매 보다 뉴기니아에 사는 원주민, 그것도 몇 년전에는 식인종이었던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기니아에 있는 한 마을의 추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추장은 그 사람에게 손에서 항상 창을 떼어놓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이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이 추장과 그 사람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추장으로부터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깊은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문화적인 공감대가 없고, 의사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 마을에서 서로 껴안았을 때 그들 사이엔 영적인 의사소통과 영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때 이 아름다운 유대관계가 맺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복달라고 비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여겨집시다. “누가 내 모친인가?”라고 물으시는 예수 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께로 직접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여 주시고 ,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배우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도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널리 전하게 되기 원합니다.”